

사설

학생자치 신뢰 회복 위한 노력 수반돼야

최근 2주간 3건의 학생 자치회비 횡령 사건이 발생해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학생자치단체장의 횡령 논란이 제기된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련의 횡령 사건이 더욱더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단과대학 학생회부터 학과와 동아리까지 사실상 총학생회를 제외한 모든 학내 자치기구 단위에서 공금 횡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 호 텔관광대학 부학생회장은 자치회비 50만 원을, 전 피아노과 학생회장은 학생회비 약 4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적발돼 감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영대학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선분의 부후보는 동아리 회장 당시 소액의 동아리 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들은 학생 자치회비를 별도의 증빙 없이 사적으로 인출하거나 단체 명의의 통장이 아닌 개

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사용했다. 학생 자치회비 관리의 허술함도 문제이거나 공금인 학생 ‘자치회비’를 카드 대금 결제 등 사적으로 운용하는 학생대표단의 인식도 문제의 대상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련의 횡령 사건이 특정 자치단체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학생자치 단위에 걸쳐 비슷한 유형으로 학생 대표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곧 학생자치회비 관리의 허점과 부족한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작년, 다수의 단과대학 학생회는 결산안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도 임기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산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학생자치단체는 학생들이 납부한 자치회비로 운영되지만 정작 납부 대상자이자 수혜자인

학생들은 자치회비의 사용내역조차 알 수 없는 셈이다. 횡령 등 회계 부정이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제캠 총학 측은 결산안이 확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문제가 없고 별도의 요청이 없어 결산안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총학의 해명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학이 투명하게 구성원들에게 회계 내역을 공개하듯이 결산안 공개는 학생회의 주체인 학생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신뢰의 부재는 학내 자치에 대한 불신으로, 그리고 이는 곧 학생들의 학내 자치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내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대표단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학생들의 알 권리와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하게 결산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기조로 학내자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있다. 횡령 논란으로 학생대표단에 대한 불신이 정점을 찍은 지금, 학내자치의 재건은 반복되는 불신의 고리를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양캠 총학 모두 학생대표단 횡령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은 학생회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나 양캠 총학 모두 횡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의지’의 표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선 의지와 함께 학생회비 관리 기준 명문화, 감사기구 설치 등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돼야만 반복되는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생대표들은 학생자치의 주인인 학생들의 신뢰가 뒷받침될 때 학내자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시봉

시대의 희극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최근 2030 사이언스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시대의 비극’으로 불리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그 시대를 살았던 순수했던 청춘의 희망과 사랑을 그리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과거의 청춘을 추억하고 있다. 90년대를 향유한 청춘의 이야기를 다룬 ‘응답하라’ 시리즈는 전 연령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젊은 층 사이에선 복고 문화를 의미하는 레트로(Retro)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행은 현대인의 정서적 결핍과도 연관이 있다. 이전과 달리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지만 정서적 결핍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과거의 ‘청춘’에 대한 향수는 현대 ‘청춘’의 정서적 니즈를 채우고 있다.

젊음을 의미하는 단어 청춘(靑春)은 한자 그대로 ‘새싹이 파랗게 돌아나는 봄’이라는 뜻이다. 봄의 이미지와 맞물려 청춘은 새로움, 희망, 미래의 표상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청춘의 새싹은 시들어가고 있다. 현재 청춘은 희망이 아닌 갈등으로 대표되고 있다.

요즘 20대는 청년이 아닌 ‘이대남’, ‘이대녀’로 불린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주요 쓰이는 이 단어는 젠더 갈등으로 대립하는 20대 남성과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정치인들은 대권 승리를 위해 20대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 바빴고 청춘은 어느덧 갈등의 대명사가 됐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갈등은 현대 ‘청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정치적 순간의 뒤엔 갈등이 있었고 갈등은 승리의 전략이었다. 이 정치적 순간마다 오히려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 갈등을 봉합한 것은 ‘청춘’이었다. 청춘의 의미가 분열이 아닌 ‘희망’인 이유다.

시대의 비극이 비극으로 기억되지 않는 것은 사회를 봉합하고 희망으로 새로이 봄을 밝힌 청춘이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시대적 비극의 끝을 마주한 지금, 비극이 희극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를 열어 갈 청춘의 역할이 중요하다. 갈등의 이분적 사회를 넘어 ‘청춘’이 시대의 새로운 희망으로써 봄을 밝히길 기대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공공의 노력이 필요한 체육대학

공동의 노력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경희 체육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여러 페이지를 장식하며 영광의 순간을 함께 했다.

우리는 ‘경희 체육인’을 여러 매체를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 이운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마무리 투수 정대현. 2020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강채영. 이들은 모두 자랑스러운 ‘경희 체육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학교 체육부는 위기에 빠져있다. 대학 스포츠의 열기는 식은 지 오래고, 재정 문제와 달라진 드래프트 구조 속에서 더 이상 ‘경희’의 이름을 밝히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에 체육대학은 ‘체육대학 전체의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체육부 인원감을 택했다.

달라지는 대학 스포츠의 흐름에 따라 변화는 필수다. 그러나 “진통은 분담해야 한다”는 송중국 학장의 말처럼 변화에 대한 진통이 오롯이 체육부의 몫이 되서는 안된다.

대학은 선수들에게 프로를 가기 위한 관문으로 통한다. 그러나 특정 종목의 경우 정원 부족으로 인해 대회출전도 불가능했다. 10년 이상 운동에만 몰두한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대학이 특기자라는 전형으로 선수를 받았으면 적어도 그 선수들이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학교 체육대학은 ‘대한민국 최초의 체육대학’이라는 명성을 지니고 있다. 대학 스포츠가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체육대학’이 이익의 증진보다는 체육대학 구성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변화를 선택하길 바란다. 체육대학 구성원은 공동체의 마음으로 공동의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만평 체육부의 진통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김경민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